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SNS 언어폭력성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김 홍 국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SNS 언어폭력성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하 균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김 홍 국

# 김홍국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2월 22일

위 원 장	경영학박사	최태영 (인)
위 원	공학 박사	김창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김하균 (인)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5
제 1 절 SNS의 개념 .....	5
제 2 절 언어폭력성의 개념 .....	6
제 3 절 비속어·은어의 특성 .....	7
제 4 절 비속어·은어의 사용실태 .....	10
제 5 절 정보윤리교육의 개념 .....	13
제 6 절 정보윤리교육의 실태 .....	14
제 7 절 교육성과 .....	16
제 3 장 연구의 설계 .....	18
제 1 절 연구의 모형 .....	18
제 2 절 연구의 가설 .....	18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	20
제 4 장 실증분석 .....	23
제 1 절 자료의 수집 방법 .....	23
제 2 절 자료의 분석 방법 .....	24
제 3 절 신뢰성·타당성·상관관계 분석 .....	25
제 4 절 구조모형의 검증 .....	29

제 5 장 결    론 .....	3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31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	32
 [ 참고문헌 ] .....	34
 [ 부    록 ]	
< 설    문    지 > .....	39
< 감사의 글 > .....	42



## 【표 목 차】

<표 4-1> 표본의 특성 .....	24
<표 4-2>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	27
<표 4-3>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 .....	29
<표 4-4> 가설검정 결과 요약 .....	31

## 【그림목차】

<그림 3-1> 연구의 모형 .....	18
<그림 4-1> 구조모형 분석 결과 .....	30

## 요 약

학교폭력의 유형이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 등에서 SNS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스마트 폰의 급속한 증가로 청소년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나 SN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속어·욕설·비방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상 문제점은 공격적인 언어와 비속어, 은어, 유행어의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의 언어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의사 표현과 더불어 비속어의 사용 문제이다. 그에 비해 은어와 유행어 등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의사 표현과 비속어의 사용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SNS 언어폭력성(비속어·은어)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언어폭력성은 정보윤리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은 교육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SNS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상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세분화된 정보윤리교육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 Study on the Impact of SNS Language Viol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through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Hong Kuk Kim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type of school violence has changed from cyber language violence through SNS to bullying and physical violence. With the rapid increase of smart phones,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profanity, profanity, and slander, because teenagers can use SNS anytime and anywhere without limitation. The language problems of adolescents are the use of aggressive language, profanity, swallow, and buzzwords. The first thing to improve on the language problems of adolescents is the use of aggressive language and profanity. The use of swallow and buzzwords is not a big problem. Therefore, measures against aggressive language expression and the use of profanity need to be prepared more urg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NS verbal abuse (profanity, fluency) 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and educational outcom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NS language violenc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Second,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NS verba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that reflects the psychology of adolescents.

Key words : cyber language violence, Slang, Jarg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Educational performance.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스마트 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 중에서도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는 데스크 탑과 같은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 웹 기반 SNS를 이용하였지만, 현재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SNS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누구나 쉽게 data를 생산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가 보다 편리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Twitter나 Facebook이 Social Media로써 각광을 받으면서 대중들에 의해 빠르게 수용될 시기에 스마트 폰이 도입되었으며 Social Media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이버 폭력의 개념으로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의미한다. 사이버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Willard(2007)가 정의한 사이버 괴롭힘은 비난, 괴롭힘, 명예훼손, 사칭, 폭로, 속임, 배제, 사이버 스토킹 등의 8가지 유형이 있다(정여진, 2016).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은 한국형 사이버 폭력의 4대 유형으로 집단적 모욕형, 반

복적 협박형, 타인 ID 도용 익명형, 콘텐츠·루머 유포형이 있다고 하였다. 정한호(2012)는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매매, 불법 유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신상정보 유포를 제시하였다. 김경은·윤혜미(2012)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 괴롭힘 등의 언어적 공격행위들로 타인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언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공격적인 언어, 비속어, 은어, 유행어의 사용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의 언어문제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점이다. 은어 또는 유행어 사용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과 비속어의 사용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SNS 사용은 앞으로도 그 사용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SNS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집단 왕따, 신체적 폭력 등에서 SNS를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스마트 폰의 급속한 증가로 청소년들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나 SNS를 사용할 수 있어 비속어·욕설·비방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빈도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의 사용 빈도, 메신저 및 채팅의 사용 빈도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

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심리상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세분화된 정보윤리교육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의 성장은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또래 친구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사이버 언어폭력과 정보윤리교육의 교육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언어폭력성(비속어·은어)과 정보윤리교육, 정보윤리교육과 교육 성과가 서로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SNS 언어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 및 교육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통계적 방법을 병행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정과 타당성 검정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mart PLS 2.0을 사용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접근방법인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 PL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로 계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sup>2</sup>) 값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서 SNS 언어 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 및 교육성과에 대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제3장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 “연구의 설계”에서는 연구의 모형 설정, 연구의 가설 설정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는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의 분석방법, 신뢰성·타당성·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모형 검증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 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SNS의 개념

SNS란 사회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이다. 소통과 공유를 강조하는 ‘웹 2.0’시대의 철학을 기반으로 성장한 SNS는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으며 1인 미디어 기능을 하기도 한다(다음백과, 2018). SNS란 인터넷을 통한 활동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을 그들의 프로필·친구목록·코멘트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친구로 이용하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인 관계를 바탕으로 친구 맺기를 통해 인맥쌓기, 구축 및 관리 등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여 그들 간의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송주완, 2012).

SNS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종전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시켰으며 인간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매체로 급부상 하였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SNS의 확산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널리 자리 잡았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언어폭력성의 개념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비방, 악성 댓글, 기타 사이버 상의 모든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2012년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불링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는데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언어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는 언어가 공격적일 경우에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비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언어의 폭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공격적 언어를 비판 의식 없이 인정하는 태도는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어 진다. 이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언어사용 실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언어 표현은 경제수준과 도시화 정도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정여진·손서희(2016)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족, 친구 및 교사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첫째,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 아버지의 언어폭력, 어머니의 언어폭력, 비행친구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경험과 관련한 생태학적 변인으로, 가족변인을 아버지 관련 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아버지의 언어폭력, 아버지 감독, 비행친구 유무, 교사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변인을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 하였을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어머니 언어폭력, 또래애착, 비행친구 유무,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또래집단, 학교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제3절 비속어·은어의 특성

#### 1. 비속어의 특성

비속어(卑俗語)는 사회적으로 격이 낮고 속된 말로, 비어(卑語)와

속어(俗語)로 구분하여볼 수 있다. 비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부르는 점잖지 못하고 천박한 말을 일컫는 것으로써, 속어에 비해서 더 비천하고 야비한 어감을 가진다. 비어는 그 의미에 대상 자체가 지니는 비천한 속성 자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의 비하의 태도가 전달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 수치감 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자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며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하의 태도'가 전달되고, 결국 체면의 손상을 경험한다.(장경희, 2010)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다(국립국어원, 2011).

이선영(2015)은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비어는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거나 얕보는 말'로 평어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속된 말'의 의미로 보통어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욕설은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이나 '화가 났을 때 혼자 감탄조로 하는 말'로 비속성이 있기는 하나, 비속어와는 달리 대응하는 보통어나 평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비속어는 사용을 금지해야 할 말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금지 대상은 실상 욕설이며 비속어, 특히 속어는 생생한 느낌을 주는 말로 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욕설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성욱(2011)은 온라인에서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카이제공 통계량을 이용하여 채팅 문장의 비속어 문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김영희(2002)는 현대 한국어의 어휘를 일반어와 특수어로 나누

면 학생과 군대 집단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속어는 특수어에 속한다. 비속어는 친숙한 사이에서 쓰이므로 자연스럽게 비속한 어감을 띠게 된다고 하였다.

## 2. 은어의 특성

은어는 기존 연구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에서 은비(隱秘)를 목적으로 하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은어는 사용되면서 자기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한 방어의 기능을 하게 된다.(김광해, 1993) 또 학생, 군인, 노름꾼, 거지, 불량패, 도둑, 도박꾼 등의 각종 집단에 따라 형성된 사회 방언의 하나로 볼 수 있다.(장경희, 2011) 집단 내적으로 볼 때는 외부에 대한 방어나 결속 등의 효과를 지니기도 하나, 타 집단과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야기한다. 이른 시기의 은어 연구에서는 은어 사용 집단이 범죄 집단이나 거지 집단과 같이 하류 계층으로 파악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은어 사용 집단이 특수 집단, 사회의 특정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은어의 생산에는 언어 형식을 변형하는 방법, 기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방법, 통신 언어적 구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은어의 경우 통신 관련 어휘들이 활용되는 경향이 현저하다(국립국어원, 2011).

대학생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어쓰기(paraphrase)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간편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은어는 생성되고 또한 은어는 파급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은어는 또래의 언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양용준, 2016).

## 제4절 비속어·은어의 사용실태

### 1. 비속어의 사용실태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2011)에 의하면 현재 청소년 언어는 비속어 등 왜곡된 언어가 잠식하고 있다. 비속어는 초등학생의 97%, 중고등학생의 99%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SNS 언어에서 ‘개-, 새끼’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표기가 가능한 SNS 언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규범적 언어의 광범위한 사용과 학교 급이 높아지면서 언어 파괴 정도가 높은 단어들을 점차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이빨까다, 열라, 쫄다, 찢다, 찌질이’ 등의 비교적 낮은 강도의 비속어에서 부터 ‘빡치다, 썰리다, 존나, 야리다’ 등의 강한 강도의 비속어도 있다.

SNS 언어에서 욕설, 헐박, 비방, 조롱, 저주 등 공격적인 언어도

문제이다. 욕설은 ‘병신, 새끼, 개새끼, 바보, 멍청이’와 같은 인칭 욕설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속어를 사용한 거친 욕설이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어 언어폭력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거친 표현을 하고, 모르는 사람의 SNS에 공격적인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적은 계층에서 청소년의 언어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의 언어문제가 그 사회의 건강함을 반영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문제 언어 사용은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정보윤리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비어 가운데는 사람 또는 직업에 관한 것이 매우 많은데, 사람이거나 직업을 낮잡아 이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만인이 평등하고, 의사소통의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현대의 언어 예절에 따르면, 비어의 사용은 부적절한 것이며 언어 예절을 벗어난 것이다.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이는 저속한 말로 정통 어법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구어적 표현을 이른다. 또 대화에서 신선한 느낌을 주거나, 주목을 끌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은 속어를 대상에 상관없이, 수업시간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성적인 저속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국립국어원, 2011).

## 2. 은어의 사용실태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실태·언어의식 전국 조사(2011)에 의하면 은어나 유행어는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의 경우 100%가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은어는 사용 목적이 ‘은비성’으로 특성화되며, 특수 집단에서만 사용된다는 사용자 및 사용 집단에 대한 제약이 있다. 특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집단 결속, 집단 보호, 외부에 대한 방어, 불만의 표출 등 여러 효과를 도모한다. 학생 집단의 은어는 청소년이 교사나 부모 등 다른 세대에 대한 대립 감정, 비행, 일탈 등에 대한 욕구 등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금기의 대상인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은어가 많이 사용된다. 은어의 예로는 ㄷ비(담배), 셔틀(심부름을 해준 사람), 아바타(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왕가(왕가슴) 등이 있다(국립국어원, 2011). 길은배(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딱딱한 어감을 주는 표준적 어법보다 비속어, 은어 등의 사용을 통하여 또래들 간에 보다 쉽게 감정적 친화가 이루어진다. 중장년의 성인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나이에 맞지 않게 그 시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 간에도 차별화를 추구하는 N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집단과 구별 짓기 위하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식 또는 따돌림의 의미로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언어사용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는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 보이겠지만, 청소년집단 내부에서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소통의 유용성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은어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저속·집단소외와 관련된 은어가 많았는데 폭력과 관련된 ‘일진, 맞짖, 뜨다, 발리다’ 성과 관련된 ‘야동, 거시기’ 집단 소외와 관련된 ‘왕따, 짤따, 따, 은따’ 등이 나타났다. 기성세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줄임말과 자음표기, 숫자, 영문표기 등도 있었다. 줄임말은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출현 빈도가 높은 유행어에는 ‘개-, 깡치다, 찢다’ 등의 비속한 언어가 많이 출현하고 있어서 폭력적인 언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5절 정보윤리교육의 개념

정보윤리교육이란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정보윤리교육은 학생들에게 정보사회의 책임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윤리적 삶의 양식을 지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윤리교육은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윤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컴퓨터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컴퓨터 윤리학을 모체로 하고 있다. Moor(1995)는 컴퓨터 기술이 아주 새로운 형태의 특수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컴퓨터 윤리학은 컴퓨터 기술의 사회적 본질과 영향력을

분석하여 컴퓨터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정당화를 그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정보윤리의 기본원리를 존중, 책임, 절제, 해악금지, 정의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중(respect)의 원리는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둘째, 책임(responsibility)의 원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절제(moderate)의 원리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 한다는 뜻이다. 넷째, 해악금지(non-maleficence)의 원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의 복지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정의(justice)의 원리는 공정한 것 자체를 추구하려는 것,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이타적인 삶, 정해진 규칙·법을 준수하지만 옳지 못한 규칙·법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박시형, 2016).

## 제6절 정보윤리교육의 실태

김성율·이옥화(2016)는 정보윤리교육의 내용은 2015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루고 있으나 일부 교과목의 단원 혹은 단원내 주제 정도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과목별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보윤리교육 내용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과에 따른 교육 내용의 구별이 없이 중복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윤리교육을 기대하기 어려

은 수준라고 연구하였다. 신영진(2016)은 교육·인식적 측면에서 정보 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회수보다 실제 효과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제고의 방법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윤리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통해 본인의 수준을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이용 시 등급제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 및 정보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학회, 기관, 학교 등이 협업하여 정보윤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금지를 통한 사이버 환경의 개선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은·윤혜미(2012)는 청소년 폭력이 사이버 상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현실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혼재하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이 사이버 폭력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 피해 경험(가정폭력·학교폭력·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과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 폭력 가해 행동 관계에서 일정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청소년이 폭력 사용에 허용적일수록 다시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폭력의 상호성을 확인하였고, 현실 폭력은 물론, 사이버 상에서도 폭력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정기·우형진(2011)은 학업과 교우 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스트레스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대화와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모관계 자체가 청소년들의 스트

레스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보윤리교육은 게임이나 메일 등과 같이 전통적인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SNS 시대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SNS 환경의 도래로 우리 학생들 사이에 SNS를 이용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기존의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같은 양상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언어폭력, 사이버 왕따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통한 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매우 크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SNS의 대중화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SNS 시대에 맞는 정보윤리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제7절 교육성과

성과(effective)란 ‘목표 혹은 의도하는 결과와 실제 얻어진 결과를 대비하는 효과성과 투입에 대한 결과 대비 효율성의 두 개념을 내포하는 성취와 과제수행’으로 정의된다(Lindsay, 1981). 교육성과는 교육효과(effectiveness), 교육결과(results), 교육영향(impact), 교육산출(output)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Astin(1991)은 학습자가 교육과정 또는 학습경험을 통하여 도달한 결과나 산출물로 심리적 자료와 행동적 자료에 근거하여 인지적 성과와 정의적 성과를 교육성

과라고 정의하였다. 즉, 어떤 특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육성과는 SNS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속어의 사용과 은어의 사용이 정보윤리 교육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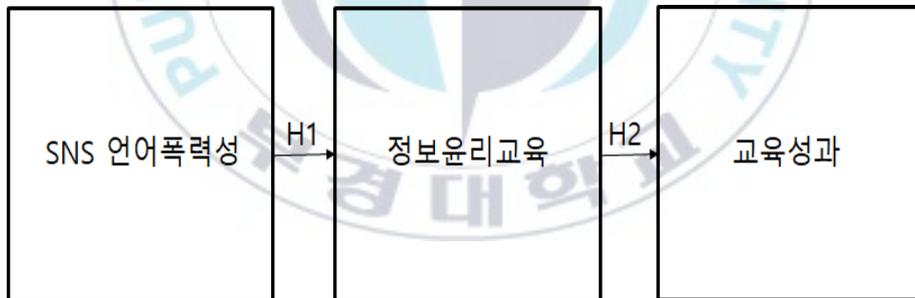
정영미(2017)는 항공서비스 관련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육성과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전공분야와 진로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자기주도적인 계획과 진로상담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설정에도움을 주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전숙경(2014)은 비속어와 은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오늘날의 청소년 언어문화는 심각한 교육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문화가 청소년을 대화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청소년 언어문화는 첫째로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확대하고, 왜곡된 개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청소년들 사이의 비속어가 권력관계를 전제하거나 공고화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불평등한 의사소통을 내면화할 수 있다. 셋째로 비속어, 은어 사용과 관련하여 기성세대와의 대화단절이 생겨나고 청소년들 간에도 다른 집단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생겨나 점차 폐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는 이러한 언어사용이 자신을 과장하거나 어긋나게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실한 자아를 대변하지 못하는 비도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모두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의 형성을 막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교

육환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제3장 연구의 설계

### 제1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SNS 언어폭력성의 속성(비속어·은어)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모형

### 제2절 연구의 가설

#### 1. SNS 언어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가설

비속어·욕설 등 공격적 언어 표현을 비판 의식 없이 용인하는 태도는 실제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언어 실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국립국어원, 2011). 정여진·손서희(2016)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족, 친구 및 교사 관련 특성이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내적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또래집단, 학교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SNS 언어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 간의 영향관계는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정보윤리교육과 교육성과에 관한 가설

이정기·우형진(2011)는 청소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송 비속어 노출 정도와 방송 비속어 심각성 인식 수준이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의도는 미디어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궁극적인 원인은 고등학생들이 부모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비속어 및 유해 언어 사용 행위라는 충동적 사회 부적응 행위가 발생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비속어 및 유해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정승도·조정원(2016)는 교육부를 비롯한 일선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요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2 정보윤리교육은 교육성과에 정(+)<sup>2</sup>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SNS 언어 폭력성과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위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7점 척도(scale)를 사용하였으며 1점 ‘전혀 아니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다.

#### 1. 특성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SNS 언어폭력성

언어의 폭력성은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언어의 폭력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아이디 도용, 사이버 왕따,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언어의 폭력성에 대한 설문문항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언어의 폭력성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언어의 폭력성	설문 I 1-4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 도용한적이 있다.</li> <li>- 사이버 왕따를 시킨적이 있다.</li> <li>- 사이버 모욕을 가한 적이 있다.</li> <li>- 사이버 스토킹을 한적이 있다.</li> </ul>

## (2) 정보윤리교육

정보윤리교육은 컴퓨터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컴퓨터 윤리학을 모체로 다양한 교육으로 정의 된다. 본 연구에서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적이 있다.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음,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음,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함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정보윤리교육의 정보 특성에 대한 설문문항을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정보윤리교육 변수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정보윤리교육	설문 II 1-4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li> <li>-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li> <li>-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li> <li>-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하다.</li> </ul>

### (3) 교육성과

교육성과는 개인이 학습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향상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컴퓨팅능력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으로는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과에 향상,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율에 향상,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생산성에 향상등의 3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Likert 7점 척도(scale)로 측정하였다. 교육성과에 대한 설문문항을 요약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교육성과 변수의 설문문항

변수	설문문항	설문내용
교육성과	설문 III 1-3 문항	-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과에 향상 -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율에 향상 -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생산성에 향상

## 제4장 실증분석

### 제1절 자료의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설문은 2018년 4월 2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 직접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총 250명의 사용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기본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3%는 남학생, 57%는 여학생이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있어서 평균연령은 16.8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부생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30.7%, 중학교 2학년 30.3%로 제일 많았다. 학생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생이 46.4%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특성(n=250)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43
	여자		57
연령	12이상 ~13이하		10
	14이하		14
	15이하		13
	16이하		40
	17이하		23
학력	중학교 1학년		10.9
	중학교 2학년		30.3
	중학교 3학년		30.7
	고등 1학년		15.0
	고등 2학년		13.1

## 제2절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는 SPSS 22.0과 구조방정식 패키지인 Smart PLS 2.0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은 Cronbach's Alpha 0.7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타당성은 각 요인의 요인적재 값, 구성신뢰도(C. R.) 및 AVE(분산추출지수 값: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적재 값은 0.6 이상, 구성신뢰도 지수는 0.7 이상, AVE 값은 0.5 이상이어야 집중타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AVE 값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통해 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에 문제가 없다. 또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접근방법인 부분최소제곱법(PL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도구는 Smart PLS 2.0을 사용하였다.

PLS란 Partial Least Squares라는 말의 약자로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추정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 제3절 신뢰성 · 타당성 · 상관관계 분석

#### 1. 신뢰성 분석

신뢰성(reliability)이란 넓은 의미에서 측정상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연구대상인 응답자에게 반복적인 측정을 했을 경우에 응답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있게 나타났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검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alpha$  계수에 대한 통일된 절삭(cut-off) 기준은 없으나

Nunnally(1978)에 의하면 예비적 조사연구(preliminary research)에서는  $\alpha$  계수가 0.5~0.6 정도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미 기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에는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이형석, 2010, p. 190).

## 2. 타당성 분석

타당성(validity)이란 최대한 상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속성을 두 시도 간 결과의 일치 정도로서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내용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서로 상이한 개념에 대하여 각각 여러 가지의 측정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후 각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였을 때 추출된 요인들이 원래 의도한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 끼리 묶여 하나의 요인을 형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는 상호 독립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 내에 묶여진 문항들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으므로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상이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이형석, 2010, p. 192).

[표 4-2]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요인적재 값	AVE	C. R.	Cronbach's $\alpha$
SNS언어폭력	0.822	0.579	0.830	0.641
	0.804			
	0.644			
정보윤리교육	0.873	0.698	0.873	0.785
	0.856			
	0.774			
교육성과	0.834	0.577	0.843	0.757
	0.844			
	0.658			
	0.683			

###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만약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0에서  $\pm 1$  사이로 나타나며  $\pm 1$ 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즉, 변화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pm 0.9$  이상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  $\pm 0.7 \sim \pm 0.9$  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pm 0.4 \sim \pm 0.7$  미만은 다소 높은 상관관계,  $\pm 0.2 \sim \pm 0.4$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  $\pm 0.2$  미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송지준, 2013, p. 121).

통계적으로 볼 때 탐색적 요인분석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 분석 시에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기본적 가정이 독립변수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지만 독립변수들 간에도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상관관계가 서로 높은 것끼리 묶어서 적은 수의 새로운 독립변수를 추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인분석이다(이형석, 2010, p. 137).

다중공선성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검증 결과 모든 가설검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별타당성은 AVE 값의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통해 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 간의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

성에 문제가 없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의 제곱근이 상관계수의 종과 횡의 값을 초과하므로 관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상관관계 및 관별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AVE	1	2	3
SNS언어폭력	0.579	<b>0.706</b>		
정보윤리교육	0.698	0.607	<b>0.835</b>	
교육성과	0.577	0.646	0.600	<b>0.75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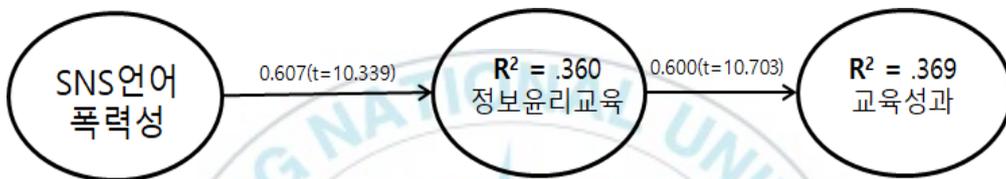
## 제4절 구조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의 검증은 Smart PLS를 사용하여 2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변수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정항목은 제거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 값이 기준치인 0.6을 모두 상회하므로 제거된 항목은 없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념 간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였다.

### 1.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구조모형 분석은 Smart PLS 2.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하여 경로계수와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 $R^2$ ) 값을 도출하였다. 내생변수에 대한 결정계수( $R^2$ )의 결과 값은 예측변수가 갖는 총 변

동 중에서 회귀선,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R^2$  값이 0.26 이상이면 적합도를 ‘상’으로 0.26~0.13이면 ‘중’으로 0.13 이하의 적합도를 ‘하’로 표시할 수 있다(Cohen, 1988). 구성요소 값이 정보윤리교육(0.360)과 교육성과(0.369)에 대한 결정계수( $R^2$ ) 값은 ‘상(high)’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구조모형 분석 결과

## 2. 가설검정 결과

앞에서 살펴 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 검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 H1에서 SNS 언어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 $\beta=0.607$ ,  $t=10.399$ ,  $p<0.05$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언어폭력성이 정보윤리교육을 통해 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설 H2의 정보윤리교육과 교육성과( $\beta=0.600$ ,  $t=10.703$ ,  $p<0.05$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교육을 통해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PL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beta$ )	t-value	채택 유무
H1: SNS언어폭력성 → 정보윤리교육	0.607	10.339	채택
.2: 정보윤리교육 → 교육성과	0.600	10.703	채택
t=1.97*, p <0.05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SNS 언어폭력성(비속어·은어)이 정보윤리교육과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언어폭력성은 정보윤리교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은 교육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까지 연구된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을 보면 관련법 제정 및 처벌의 강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학생·학부모

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및 계몽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SNS 언어폭력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SNS 언어폭력성에 대한 연구이다. SNS 언어폭력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보윤리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길은배, 2014). SNS 언어폭력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사용자들의 언어폭력 형태에 따라 정보윤리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통해서 SNS 언어폭력성을 해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SNS 언어폭력성에 대한 정보윤리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발전적으로 SNS 언어폭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윤리교육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져야 한다(정여진·손서희, 2017).

SNS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정보윤리교육의 지향점은

첫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학부모들은 정보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윤리에 대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SNS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언어 순화교육,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언어의식을 순화한다면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다. 사이버 불링 발생 가능성이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져야 하겠다.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윤리교육적인 접근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윤리교육은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 예방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정보 활용 등의 정보윤리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SNS 언어폭력성-정보윤리교육-교육성과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실증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SNS 언어폭력성과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SNS 언어폭력 문제의 해소를 원하는 SNS 사용자들의 정보윤리교육 및 교육성과를 확인함으로써 SNS 언어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http://www.law.go.kr>, 검색: 2018.10.15.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2010, pp.401-427
- 국립국어원(2011), <http://www.korean.go.kr>, 청소년의 언어실태·언어 의식 전국조사, 검색: 2018.06.10.
- 길은배(2014), 청소년의 비속어, 은어 사용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언어 일탈, 통과 의례적 문화인가?,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2호, pp. 469-489.
- 김경은·윤혜미(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제39호, pp. 213-244.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성울·이옥화(2016), 교과융합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19권 제4호, pp. 21-31.
- 김영희(2002), 접미사 -돌이 -순이 系列의 卑俗語에 대하여, 정신

- 문화연구, 제25권 제1호, pp. 85-102.
- 다음백과(2018), 매경시사용어사전, <http://100.daum.net>, 검색: 2018.10.15.
- 로려(路麗)(2011), 회계정보시스템 특성변수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시형(2016), SNS 언어폭력 실태와 인터넷 윤리교육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주완(2012), 외식업체 SNS의 광고가치가 브랜드 자산,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p. 10-11.
- 송지준(2013),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과주시, 21세기사.
- 신영진(201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역기능 사례 검토 및 정보유리를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0권 제3호, pp. 203-232
- 양용준(2016), 대학생의 은어 사용실태 분석, 영어영문학, 제21권 제3호, pp. 111-128.
- 이선영(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제64집, pp. 59-80.
- 이성욱(2011), 온라인게임 채팅에서의 비속어 차단 시스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7호, pp. 1531-1536.
- 이정기·우형진(2011),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 방송 비속어 노출 및 심각성 인식, 스트레스,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2호, pp. 356-380.
- 이형석(2010), 사회과학 논문의 기초, 서울, 한경사.
- 장경희(2011),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2011-01-38 (발간등록번호: 11-137028-000361-01)
- 전숙경(2014), 대화를 통한 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언어문화의  
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9권, 제3호, pp. 167-185.
- 정승도·조정원(2016), 고등학교 정보과학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  
한 분석 및 개선 방안 - 정보윤리와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8호, pp. 208-214.
- 정여진·손서희(2017),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5권 제2호,  
pp. 1-16.
- 정여진·손서희(2016),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  
253-253.
- 정여진(2016),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영미(2017), 교육성과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  
계 :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9권 제3  
호(통권 제115호), pp. 251-271.
- 정한호(2012),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0권, pp. 205-241.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http://www.nia.or.kr>, 검색: 2018.06.15.

[2] J. Yoon, Psychological research direction about youth,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 (1992) pp. 45-56.

[26] S. Lee and E. Cha,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 Vol 17, No 4, pp. 550-560.

[27] S. Lee and J. Hwang, Internet Collective Efficacy and Cyber Linguistic Viol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8), Vol 3, pp. 167-189.

< 국외문헌 >

Astin, A. W.(1991),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Y: American Council & Education, Macmillian.

Cohen, J. O.(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90-200.

Lindsay, C. A.(1981), A Model and Process for University / Professional Association Collaboration.

Moor, J. H.(1995), What is Computer Ethics? Computer, Ethics and Social Values, Englewood Cliffs.



[부 록]

< 설 문 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 SNS 언어폭력성이 정보윤리교육을 매개로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정보시스템 협동과정

지도교수 : 김하균 교수

연구자 : 김홍국

연락처 : 010-6223-0007

E-mail : sekdong@gmail.com

▣ 다음의 각 설문 문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I. SNS언어폭력성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문내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아이디 도용한 적이 있다.							
2	왕따를 시킨 적이 있다.							
3	사이버 모욕을 가한 적이 있다.							
4	사이버 스토킹을 한 적이 있다.							

II. 정보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문내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인터넷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2	학교에서 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3	가정에서 정보윤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	산출정보의 내용이 유용하다.							

Ⅲ. 교육성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 문 내 용	매우 부정	조금 부정	보통 이하	보통	보통 이상	조금 긍정	매우 긍정
1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과에 향상이 있다.							
2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효율에 향상이 있다.							
3	정보윤리교육 후 교육생산성에 향상이 있다.							

Ⅶ. 인구·통계학적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NO	설 문 내 용	
1	당신의 성별은	남 여
2	당신의 연령은	
3	현재 학년은(중·고 학년)	

## < 감사의 글 >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 여러 귀한 분들의 도움으로 작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꼼꼼하게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최태영 교수님과 김창수 주임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끝까지 세밀하게 도움을 주신 김하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통하여 연구에 관련된 저의 무지를 깨칠 수 있었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석사를 졸업할 수 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웃는 얼굴로 논문 작성 전반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김현규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제자로서 교수님들의 명성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석사과정을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본인의 나이에 불구하고 좋은 분위기로 강의를 수강하며 함께 연구해온 분들께도 덕분에 석사과정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만학도로서 학교생활을 늘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민수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2월

김 홍 국